



미추홀



| 발행처 | 미 추 홀 종 합 사 회 복 지 관 | 발행인 | 황영선 | 편집인 | 전미옥, 조덕환, 김석중, 윤현주, 김용운, 김주원, 이재영 |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염창로 97(주안5동 22-59) | 전화 | 876-8181 | 팩스 | 876-8416 | www.michu.or.kr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제32호 (매월발행)

더 이상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다! 현직 소방관이 알려주는 재난상황 대처요령



요즘 대한민국이 많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지진과 함께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부산에는 엄청난 크기의 태풍이 와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재난에 시민들이 올바른 대응책을 알지 못하고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올바른 대응책과 예방법을 알기 위해 인천 남구에 위치한 인천남부소방서를 방문하여, 소방홍보팀장 박우철 팀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Q. 자기소개와 인천남부소방서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남부소방서 소방홍보팀장 박우철입니다. 인천 남구는 전통시장, 백화점, 터미널 등이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으며, 주요 역세권과 도시 재생사업의 가속화 등이 진행 중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인천남부소방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 시대에 부응하는 소방시책을 펼치고 완벽한 재난대비 역량 강화로 119서비스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Q. 요즘 지진, 태풍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진진이 발생하였는데 1978년 기상청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로 지진에 대해 안전할 수 없는 데 시민 여러분들의 지진에 대한 행동요령 숙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물 내에 있을 때는 책상이나 침대 밑에서 학살리를 꼭 잡아야 하며,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을 끄고 가스 밸브를 잠금니다. 또한, 창문이나 육의 난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며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넓은 광장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는 고정된 물체를 꼭 잡으며, 안내방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약품, 비상식량 등을 미리 확보해 두고 지진 예방 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울산을 내습한 태풍 '차비'는 시간당 최고 131mm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를 내리며, 엄청난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태풍에 미리 대비해 피해를 줄이는 현명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방송매체 등을 통해 태풍의 경로를 파악하고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대피할 장소나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의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 내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틀을 고정하고 비산방지필름을 붙여 두는 것이 좋으며, 전기화재나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태풍이 상륙했을 때는 외출을 삼가고 운전 중일 경우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Q. 인천남부소방서에서 재난대응에 대해 시민들에게 교육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민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인천남부소방서에는 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재난(화재, 지진 등)에 대한 예방 및 행동요령과 위급한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재난과 안전사는 항상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 만큼 평상시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며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에 안전위험 요소를 발견하게 될 경우 안전신문고나 관계기관을 통해 신고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우마쉼터 벽화

벽화로 아름답게 변화된 내 마을 용현3동 우마쉼터

지난 5월호 미추홀@에서 소개한 골목학교를 기억하시나요? 그 때 인터뷰를 해주신 조영호 대표님께서 인하대 병원과 송도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신 마을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초입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름다운 벽화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골목골목마다 수놓아진 색색의 벽화는 마을을 아름답게 보기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을 가운데에 있는 우마쉼터는 오물과 쓰레기가 쌓여있고 저녁이 되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쉼터 옆에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지고, 주변이 청소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마쉼터는 진정한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변모되었습니다.

대표님은 후에 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조영호 대표님은 요즘 시대의 공동체 의식의 상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 벽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



우마 통두레



인기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합장면

-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항상 감사합니다.
- 따뜻한 나눔을 함께 실천하실 분은 032)876-8181로 연락 바랍니다.

따뜻한 나눔가게를 소개 합니다.

돌판향기



신선한 고기와 특별한 돌판을 이용하여 보다 맛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멋있는 음식점!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돌판향기는 저렴한 가격과 감동적인 맛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음식의 맛을 최대한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손님이 만족하고 나기기 전까지 옆에서 보조하며 음식을 대접하고 있으니 꼭 한번 찾아가서 먹어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바로 두루치기! 푸짐하고 싱싱한 이채와 함께 뿌이주시는 두루치기는 간장게장을 명함도 못 내밀 밥도둑이라고 하니 꼭 먹어보세요!

돌판향기의 특별한 서비스 하나!

고기를 드신 모든 손님에게 전자국수가 제공된다는 사실!! 식사 후 입장으로 떠!

멋진 사장님의 멋좋은 고기에 돌판의 풍미까지 결들여주는 돌판향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예약문의 : 032) 873-8625 · 인천 남구 석정로 422(주안동)

황금오리



수고한 내 몸을 위해 건강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건강 보양 오리 음식점!

* 2013 맛있는 집 경연대회 최우수상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황금오리는 무더운 한 여름날 우리들의 몸에 건강한 보양식이 될 맛있는 오리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오리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름 보양 음식으로는 능이버섯 오리 백숙이라고 해요. 오리백숙이라고 해서 기름이 많을 것이라 생각은 금물! 일단 드셔보시면 그 깔끔함에 한 번 더 놀라실 겁니다!

또한 능이버섯은 기관지·천식·감기·산후병·콜레스테롤·신화·암 등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암에 강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음식입니다.

백숙을 다 드시면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는 맛있는 백숙죽 한 그릇의 여유까지 즐기고 오시면 됩니다.

☎ 예약문의 : 032)861-2010 · 인천 남구 석정로 428(주안동)

정자갈비



아이들과 함께 편안한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양념돼지 갈비요리!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정자갈비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주말 외식을 즐기실 수 있는 식당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식사하랴, 아이들 쟁기느라 많이 힘드셨죠? 정자갈비에서의 식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준비되어진 안전한 놀이방과 함께라면 말이죠. 양념갈비는 밀반찬으로 나오는 명이니들과 함께 먹어보시면 달달하면서 느끼하지 않는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주말, 타기 쉬운 양념갈비를 알아서 질라주시는 친절한 직원 분들의 서비스와 함께, 가족들과 잊지 못할 외식을 즐겨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 예약문의 : 032)874-9588 · 인천 남구 석정로 412(주안동)

우리동네탐방

교과서를 나온 책들이 꿈을 꾸는 사회적 기업 <도서관 학교>



사무실은 책으로 가득한 도서관이 되어서 저희를 받아 주셨는데 책의 담고 있는 아름다운 글들처럼 넉넉한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문승찬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해 주시면서 내내 책의 무한한 다양성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서관학교를 소개하면은 도서관의 책들을 학교 안의 교육 속에서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이 아이들에게 재밌고 삶에 더 친근한 친구로서 평생 같이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아이들에게 책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쉬운 이야기며,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발현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도서관 학교는 교과서의 소개된 책들을 통해서 평생 함께하는 문제들을 향의적인 문제해결로, 구현하여 계획하기 수행하기 - 검토하기 - 체험하기 - 확인하기 과정을 거쳐 생각하기의 6단계를 문제해결에 결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BIG 6'라는 교육프로그램 및 과제풀기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데요.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는 향의적 교육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교육의 폐해는 아이들

이 점점 책을 멀리하는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교육적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향의교육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탐색·파악·독서·정리·쓰기·평가단계(플빈박사의 6단계)를 살펴보면 문제의 정의를 내려 평가를 한 후에 절차를 바로 잡고 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단계에 좌석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해결력을 높이고 보다 나은 대안과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 계기는 인천시에는 작은 도서관 30개 아파트 내 500가구 이상 도서관을 도입하게 하는 도서관 확충법이 발효되면서 모든 국민이 책을 독서를 생활화 하는 시대에 발 맞춰 아이들과 학부모의 독서의 생활화와 발전 적인 문화생활을 일환으로써 사회에 교육적 질을 높이고자 시작된 것입니다.

2014년부터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이만수교수님께서는 문현정보학과에서 BIG 6원칙을 토대로 하여 시험적으로 도서관 학교를 운영하였고, 대진대학교 자원봉사 학생들을 통하여 인근에 초등학교와 MOU 맺어 학생들의 동아리에 합류되어 표현 시립 도서관 독서교실에서 역사

전미옥 시민기자

탐방을 하며, 우리 문화 체험을 아이들에게 생각의 6단계를 가르치고 실천하여 향의력의 실험정신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인천 남구 주안과 포천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책읽기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고학년과 저학년 팀으로 나뉘어서 활동이 달라지는데 아이들이 계획을 짜고 평가하는 수준이 달라서 그렇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우왕좌왕하나 차차 차분하게 독서와 토론에 익숙해지면 참여하여 각 부분에 서로 참여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재미있어하는 것을 보았기에 문승찬 대표님은 희망을 갖고 도서관 학교 사업에 꾸준히 일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자책에 눈이 빠지는 현대시대에 도전이며 전자책으로도 읽을 자유를 얻어서 좀 더 여유 있고 사색을 즐기는 아이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시민들이 되길 소원하며 시민문화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기업입니다.

인천시민과 포천시민에 아이들이 앞으로 새롭게 발전하기 기대하겠습니다.

전미옥 시민기자

전통을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온몸으로 느끼는 남구 전통체험



내가 조선의 관원이다 활동사진



미추홀에서 비류찾기 활동사진

"내가 조선의 관원이다!"

인천 남구가 인천도호부청사에서 조선시대 놀이를 현대화 시킨 4D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통체험 '내가 조선의 관원이다!'는 남구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2016년 생생문화재 사업, '비류, 문학 산에 내일을 품다'의 3번째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5년 처음 선보였다.

내가 조선의 관원이라는 조선시대의 관료체계를 쉽게 놀이로 배워보던 우리나라 전래놀이인 승경도놀이를 응용해 창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인 인천도호부청사를 구석구석 돌아보며 관아와 객사에 대해 알아본 후,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 치웠던 과거시험을 현대화한 '과거시험 - 장원급제로구나!'를 통해 직접 문·무관 시험을 체험하게 된다. 이후 과거시험 결과에 따라 참가자들은 정(종) 9품~ 정(종) 1품까지 관직을 부여받고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관직의 특성과 체계에 대해 배워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편 프로그램은 8월 27일에 이어 9월 25, 10월 22일, 11월 26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초등학교 전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회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생생문화재 사업 카페(www.cafe.naver.com/withmichuhol)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문화예술과(880-4887) 또는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문화유산활동팀(02-2038-8938)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생생문화재 사업 '미추홀에서 비류 찾기'

'미추홀에서 비류 찾기'는 2016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선정 사업으로 비류건국신화를 모티브로 개발된 가족단위 스토리텔링식 트래킹 프로그램이다. 백제인이 된 참가자들은 문학산 정상까지 트래킹을 즐기며 숲체험과 문화유산 해설, 놀이를 통한 역사체험 등 각 포스트별로 미션을 수행하고 정상부에서는 창작 인형극을 관람하며 비류를 만난다. 미션을 가장 먼저 수행한 팀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 카페(www.cafe.naver.com/withmichuhol)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인원은 가족단위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문화예술과(880-7969)나 한국문화연구센터 문화유산활동팀(02-2038-8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 '미추홀에서 비류찾기'는 11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아이의 꿈을 키워요

I can do it .

인생의 올바른 지도자 '선생님'을 만나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내 방과후교실 아동들의 장래희망을 선정하여 만나 뵙고 오는 'I can do it!' 이번 10월 호에는 선생님이 선정이 되어, 대진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교수를 지내셨던, 이만수 교수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만수 교수님은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하여 대학교수까지 지내시고 은퇴하신 한 평생 교직에 몸담으신 분입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진대학교 독서문화연구소장 이만수 교수

저는 1992년도 대진대학교 문현정보학과 창설 시절부터 교수를 지내고 약 3년 전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는 사회적 기업 도서관 학교를 운영하고 포천시 도서관 부위원장, 도봉구청, 임주시청 도서관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어릴 적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하던 중 명지대학교 문현정보학과 2학년으로 편입하여, 중앙대와 상명대에서 박사학위를 얻어 약 14년 동안 교수생활을 하였습니다. 현재 딸 두 명 또한 중앙대와, 중국에 위치한 복旦대에서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Q. 선생님이 되고 싶은 아이들은 많을 텐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이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사회에 기여하는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에 언급된 사항이 충족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꿈을 향해 주저 없이 나아가며 자신을 단련시키기로 될 것입니다. 독서는 자기 단련의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독서를 함으로써 배경지식이 증가하고, 그럼으로 하나를 공부하면 열을 깨치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지금 대진대학교에서 문현정보학과 교수에 재직하고 있는 장인호 교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늦깎이 대학생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공부와 학과활동에 있어 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대진대학교 문현정보학과 1호 박사를 나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수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후배들을 위한 모습을 보이며 모든 행사에 참석할 정도로 학과에 대한 애정이 높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있어 장인호 교수처럼 평생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라는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선생님으로써, 인생의 선배로써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대로 끊임없이 독서를 생활화하여 자신을 단련시키고, 매사에 성실히 태도로 임한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으시다면?



독서문화 연구 강의중인 이만수 교수

동아리 탐방

남구 주민동아리 지원의 중심지! 학산문화원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학산문화원에 방문하여 학산문화원 공간운영팀장을 맡고 계신 문현철 팀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학산문화원은 남구 지역주민들의 생활예술 발달에 있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Q. 학산소극장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학산문화원 문현철 공간운영팀장

저희 학산소극장 건물은 원래 용현 14동 주민센터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전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남구청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이야기하여 약 1년 여 간의 리모델링 기간을 걸쳐 원래 있던 학산소극장과 주민센터 건물이 합쳐지며 이번 2016년 4월 달에 새로 개관하였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기회로 저희 학산소극장은 전문예술공연을 위주로 하던 분위기에서 시민 참여 생활예술 공연으로 탈바꿈하는 중입니다.

Q. 지역주민들의 생활예술 발달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인천 남구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공연 및 전시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 춤, 합창,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극장 공연지원과 창작작품, 수집품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1팀당 30만원 이내에 참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색공연이라 하여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와 전문예술가들의 결합 창작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동아리들이 정비가 잘 갖추어진 공연장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해 찾아오는 주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가 자체적인 연극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흥보적인 부분에 있어 관객이 많이 줄어들어 그 점이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흥보를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저희 학산소극장을 널리 알릴 계획이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저희 학산소극장에 이번 년도 말까지 28개 아마추어 예술팀의 공연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에 공연을 무시하지 않아 그분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남구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예술이 결합되어 주민들을 위한 생활예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